

Interesting Articles for KEMA Memb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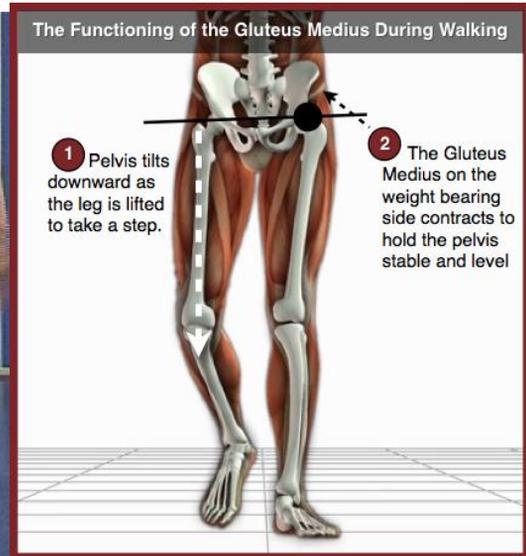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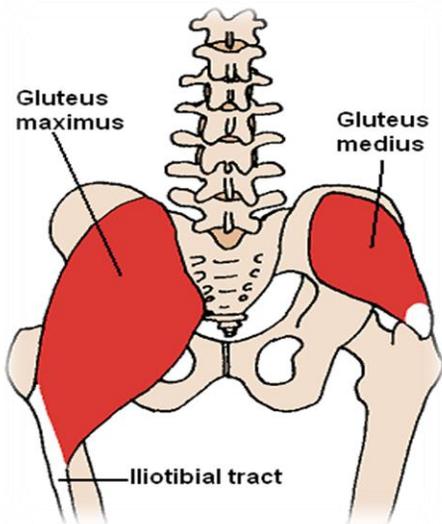
둔부 근육 강화에 Weight Bearing과 Non-Weight Bearing 중에서 효과 적인 것은?

GLUTEAL MUSCLE ACTIVITY DURING WEIGHTBEARING AND NON-WEIGHTBEARING EXERC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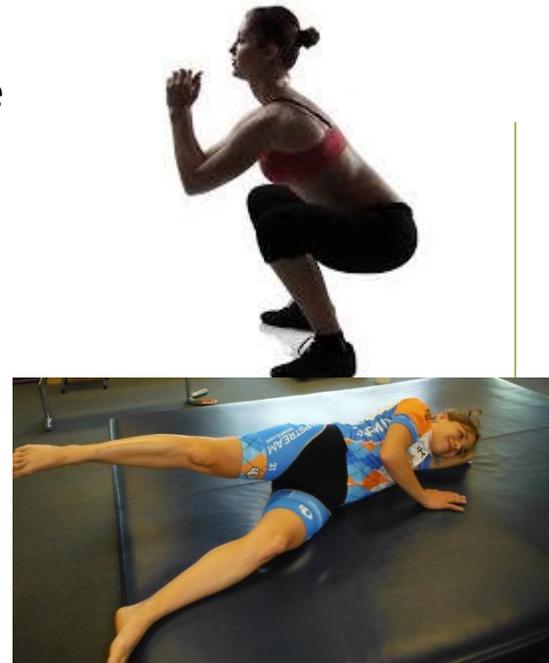
Int J Sports Phys Ther. 2014 Dec;9(7):907-14.

둔부 근육의 약화가 미치는 영향

Gluteus Maximus(Gmax)와 Gluteus Medius(Gmed)는 기능적 움직임
을 하는 동안에 femur의 안쪽 돌림(internal rotation)과 모음
(adduction)의 eccentrical control에 기여한다. 이러한 Gluteus
muscle들의 약화가 무릎에 patellofemoral pain syndrome, knee
arthritis등 다양한 정형적 질환을 야기시킨다는 연구들이 많이 소개
되고 있다.



둔부 근육을 강화하는 연구들 중에서 side
lying에서 abduction시키는 non-weight
bearing의 운동들에 대한 효과와 single
leg squat, squat, lunge등의 weight
bearing의 운동들에 대한 효과가 연구되고
있지만 weight bearing과 non-weight
bearing의 차이에 대해 비교한 논문은 없
었다.



Non-Weight Bearing VS Weight Bearing: G.max and G.med

이 논문의 실험은 Gmax와 Gmed에 EMG센서를 부착시켜 4개의 운동에 따른 근전도를 확인하였다.

4개의 운동은 Weight bearing에서 2개: Forward step & Side step, Non-weight bearing에서 2개: 10RM extension & 10RM abduction으로 진행하였다.

Weight Bearing



Forward step



Side step

Non-Weight Bea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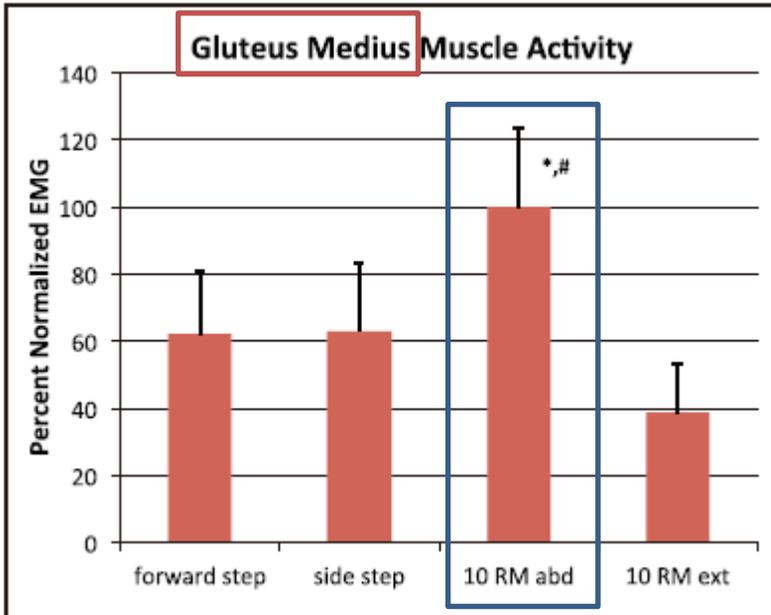


10RM exten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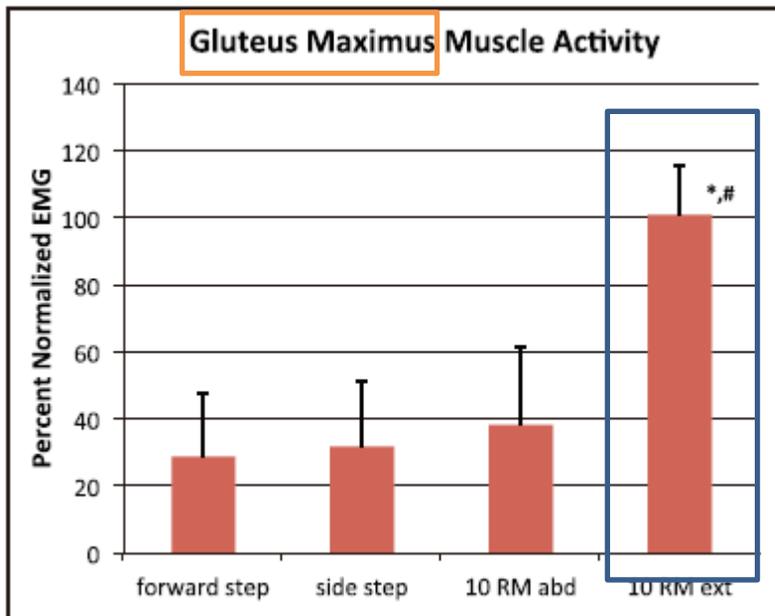


10RM abduction

Non-Weight Bearing VS Weight Bearing 결과



Gmed에 대한 근 활성도는 sidelying에서 abduction인 non-weight bearing이 더 높았다.



Gmax에 대한 근 활성도는 prone에서 extension인 non-weight bearing이 더 높았다.

왜 Non weight bearing이 더 많은 근활성도를 보였을까!

Gmed 근육이 non-weight bearing에서 side lying 자세에서 abduction을 시키는 것 자체가 Lever arm이 가장 길기 때문에 더 많은 근활성도를 요구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는 잠재적으로 힘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

또한 Gmax의 경우 non-weight bearing에서 prone자세에서 extension을 시키는 것이 더 집중적으로 Gmed를 자극하는 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hip flexion angle이 증가 됨에 따라 external rotator로 Gmax의 작용이 증가하지만 hip flexion이 0도일 때는 external rotator로 Gmed와 piriformis가 사용되기 때문에 Weight bearing의 움직임에서 Gmax를 선택적인 강화가 어렵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자는 10RM수준의 Non weight bearing 상태의 exercise가 Weight bearing 상태의 기능적 움직임인 Forward, lateral step보다 둔부 근육을 자극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둔부 근육을 자극하는데 non-weight bearing과 weight bearing중에 어떤 것이 효과적일까?” 에 대한 질문에

근골격계 전문가인 우리의 답변은

“Non-weight bearing이 둔부근육을 선택적으로 자극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라고 이 논문을 근거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KEMA 책임 연구원 황의재-

-문의사항은 KEMA 홈페이지 기사에 댓글로 남겨주세요-